

으나 紙面이 다 하였으니 幽宅의 冥福을 빌면서 이만 擱筆한다.

哭澗松全鑿弼仁兄

金 斗 鍾

삼가 澗松 全鑿弼兄의 靈前에 告하나이다. 兄은 우리文化財의 收藏과 研究에 있어 當世의 第一人者인 것은 國內外를 通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찍부터 우리文化財 그 中에도 特히 古美術品의 收集과 研究에 三十餘年동안을 汗결같이 心과 物을 기울여 왔다. 때로는 海外로 逃避한 貴重한 우리文化財를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 日本으로 건너가 愛國의 誠熱을 다하여 最後의 目的을 達하기 까지 하였으며 또는 收藏品에 따라서는 當時의 日政의 魔手를 避하기 위하여 몰래 그 物品을 入手秘藏하게 한 것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美術品의 研究에 있어서는 많은 實物을 對象으로하여 比較, 觀察, 直感, 批判 等の 넓은 知識을 쌓으면서 葦滄吳先生의 該博하고도 卓越한 鑑識力에 많은 指導와 感化를 받아왔다. 兄의 所藏品中에 우리나라의 國寶로 指定된 것만 十餘種이 되며 「유림」에서 展示中에 있는 우리國寶級에 屬한 美術品中에 兄의 所藏品이 거의 그 一割을 차지하고 있다는 點으로 보아도 우리文化財에 對한 兄의 研究가 얼마나 깊었으며 그 收集에 얼마나 努力하였든가를 짐작할 수 있다.

슬프다. 이제 兄같은 卓越한 鑑識力을 가진 巨匠을 잃게된 것을 우리文化界를 위하여 痛惜해 마지 않는다. 兄같은 巨匠은 世間에 늘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혹 하나씩 있는 것이라, 하늘이 반드시 長壽를 주어 當然히 斯界의 道를 闡明케 할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이 理이며 이 길이라 兄같은 抱負와 識見을 좀더 活動의 餘期를 주었으면 이 分野의 大成을 녀너히 期하였을 것이며 萬一에 七十期의 年齡을 갖게 되었더라면 거의 神化의 域에 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 두가지를 모두 잃게 되었

구나. 兄이 가시는 날에는 兄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長歎息을 하면서 우리文化界의 巨匠을 잃었구나 古美術界도 이로 부터 寂寞하려는구나 한다. 더구나 나의 痛切이야 어찌 끝이 있겠는가 兄은 平素부터 나의 尊敬하는 親友로서 또 同好人의 同志로서 從遊의 機會를 늘 갖고 있었다. 公席이나 私席에서 對할때마다 그의 해재없는 白玉같은 心境, 名利에 脫俗한 高潔한 性格, 百변을 보아도 뜻이 다하지 않는 溫厚한 雅量은 그 어느 것이 追憶에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참으로 人間다운 人間味의 所有者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슬픔과 追憶만으로 兄의 靈을 吊하려 않는다. 兄이 一生을 기울여 收集한 우리民族文化財를 어떻게 保存하여야 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이 點에 있어서는 遺産處理의 責任者인 遺族들의 意見이 가장 크게 支配되리라고 믿지마는 우리들 親友나 同好人들 사이에서는 兄이 平素부터 意圖하던 民族共有의 公開博物館을 建設하여 兄의 收藏品을 永久히 保存하도록 하는 紀念會를 우선 만드는 것이 좋다는 데 거의 意見이一致되고 있다. 이 事業은 單純히 어느 一家族의 集團이나 小規模의 私設 紀念會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國家의 事業으로서 澗松紀念博物館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收藏品은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澗松같이 研究와 收集을 并行하는 愛族의 熱誠을 가져야 되며 澗松같은 稟性의 財產의 所有者라야만 可能할 수 있는 일이다. 國家로서도 一個人의 紀念事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民族全體의 公開의 事業으로 積極推進하여 有終의 美를 거두도록 하여주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故人の 靈을 吊하는 唯一의 길인 될 것이며 또는 文化財收藏에 關한 國家의 勸奨方法도 된다.

兄이여 우리들은 心熱을 기울이어 兄의 遺志遺業을 받들어 우리 民族文化에 깊이 간직한 兄의 精神을 永遠히 살려 빛나게 하려한다. 兄이여 고이 잠드소서